

당정청 “우리는 공동운명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혜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단,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 첫 당정청 전원회의 정기국회 개막 앞 단합 다져 소득주도성장정책 가속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등 협력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표 역시 인사말에서 "(문재인정부) 2년 차는 당정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중요한 시기"라며 "당을 잘 이끌어 문재인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닦는 일이 당이 할 일"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공유 아래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당정청의 화합과 단합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 의공체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였으며 "당정청이 함께 하는 것은 공동운명체로, 윈윈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민생경제-평화국회 추진전략 발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운용 방향 발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 참석자들은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으로 오찬을 하고서 자유토론에 돌입했다. 식사 자리에서는 가벼운 농담도 오갔지만,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은 문재인정부 2년 차를 맞아 당정청이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속에 사뭇 진지하게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와 당정청 소통문제, 규제혁신, 기업의 애로사항, 부동산 시장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 인터넷넷은행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묵묵히 들었고, 정책에 관한 답변은 주로 이 총리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청 전원회의는 오후 1시 25분까지 145분간 진행됐으며, 이후 6개 합의를 발표했다. 당정청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가속화, 정기국회에서의 성과 도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당정청 소통·협력 강화, 여야 협치를 위한 지원, 정책 홍보 강화 등을 6개 합의사항에 담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6년만의 복귀



2일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당선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 권은희 최고위원, 하태경 최고위원, 손학규 신임대표, 이준석 최고위원,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바른미래 신임 대표 선출 국민의당·바른정당계 결속 선거제 개편·정계개편 주도 당 정체성 정립 등 현안 산적

당내 화학적 통합과 더불어 미완의 과제로 남은 당 정체성 정립도 손 대표 몫이다. 당은 지난 6월 당 정체성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는 '정당'으로 정의했지만 바른정당계가 '진보' 문구에 지속해서 반발했다. 대권주자로 당의 간판이었던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없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패배감에 젖어 있는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도 급선무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문제를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이끌어내겠다고 한 손 대표가 이를 어떻게 이룰지도 관심이 쏠린다. 손 대표가 6·13 지방선거 기간과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계속 강조한 정계개편 주도의 문제가 당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슈로 꼽힌다. 당내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중도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세력, 개혁 성향의 자유한국당 세력을 모아 중도 성향 야당 건설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당 통합 전문가'로 자칭하는 손 대표가 이를 어떻게 요리해낼지 주목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편 손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인기에 영합해 눈치만 보고 영무세 노릇에 앞장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막말하고 시비를 거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수구적 거대 양당이 의회정치를 망치고 있다"면서 "한국 정치를 어지럽히는 두 정당과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지를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재인정부에 대해 "나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을 갈래갈래 찢어놓고 있다"며 "상하·빈부갈등도 모자라 '을음'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한쪽을 살린다면 또 한쪽을 죽이는 것이 무슨 개혁이며, 혁신인가. 이게 적폐청산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촛불정신은 패권정치의 부정이고 국민주권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지금 패권정치의 유령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며 "경제가 파탄이고 실업자가 거리를 매우는데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여당 대표는 20년 장기집권을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가동 준비 착수

노동·고용 민생문제 시민단체·노동계와 함께 풀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현안을 맡게 될 민생연석회의의 가동 준비에 착수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김상곤 위원장이 이끌던 혁신위원회가 당헌에 규정하고 설치한 기구지만, 을지로위원회 등과 역할이 겹쳐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이 기구를 통해 노동·고용 문제, 민생 현안들을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혹은 노동계와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최근 남인순 최고위원에게 기구 운영 전반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남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민생연석회의의 운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헌당규상 민생연석회의는 공동의장을 포함해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절반은 외부 인사로 꾸려진다. 당내 위원으로는 당대표, 최고위원 1명,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기는민생실천위원장, 전국직능대표 자회의 의장,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의장은 당대표와 외부 인사 중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세계수영대회 특위 구성

의회 차원 지원 대책 마련...전남도의회 오늘 정례회 개최

광주시의회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선다. 광주시의회는 2일 "세계수영대회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시의회 세계수영대회 특위에는 김광란(광산4)·김용집(남구1)·김학실(광산3)·이홍일(동구1)·임미란(남구3)·장재성(서구1)·조석호(북구4) 의원이 참여한다. 대회 흥행에 중요한 변수가 될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참석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박정옥·오광록 기자 jwpark@

한편, 전남도의회의는 4일 제325회 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오는 18일까지 15일 간이며,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의 2017 회계연도 결산, 행정사무감사 계획,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한다. 특히 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철진 전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또 여수 경도지구 개발 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전남개발공사의 공사재 발령 계획을 듣는다. /박정옥·오광록 기자 jwpark@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성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